

정기예금 만기도래와 채권 수요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 대비한 현금성 자산 확대도 크레딧 수요 위축 원인
부동산PF 관련 예금자 불안 지속되면 제2금융권 크레딧 수요 회복에 부정적
제2금융권 수신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역마진 탈피 위해 크레딧 비중 늘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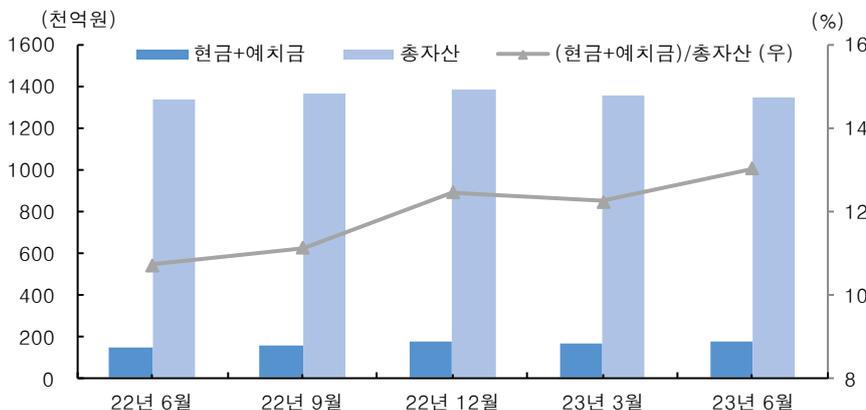
제2금융권 수신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크레딧 수요 회복 예상

크레딧채권 수요는 저가 매수는 유입되는 분위기지만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다. 크레딧채권시장의 큰 손으로 거론되어 온 주요 시장 참가자들의 매수세도 약화된 상태다.

주요 크레딧채권시장 참가자들 중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수요가 위축된 데에는 작년 4분기 고금리 예금 유치도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작년 4분기 유치한 고금리 정기예금의 만기가 4분기에 도래하면서, 제2금융권에서는 예금 인출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발생을 우려하는 회사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사들은 MMF 등 현금성 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 만일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자산운용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역마진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업계가 상반기 적자를 기록한 데에는 자산운용에서 현금성 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간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4분기 중 예금 재유치에 성공하면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확인되면 역마진 부담이 있는 자산운용구조를 정상적인 상태로 환원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크레딧채권 투자를 정상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저축은행 현금성자산 비중 증가세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투자증권

김기명

kmkim@koreainvestment.com

부동산PF에 대한 부담이 예금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상황이 우려되면 예금 인출에 대비해 현금성 자산을 줄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부동산PF 익스포저가 큰 금융회사는 역마진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현금성 자산 비중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크레딧채권 수요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동부새마을금고 사태 발생시 정부는 적극적인 예금자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뱅크런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했다. 예금자들은 정부가 최후의 보루로 나서면서 잠재적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서도 예금을 인출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체험했다. 따라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부동산PF와 관련한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예금자들이 불과 3,4개월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경험했기에 4분기 만기도래하는 정기에예금을 불안 심리로 인해 대거 인출해 나가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달 21일에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에 따른 수신 경쟁 가능성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에예금 최고 금리는 4%를 터치하기는 했지만 추가 금리 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만기도래하는 제2금융권 예금이 시중은행 등으로 이동하지 않고 현재 4% 후반~5%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에 그대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확인되면, 예금 인출 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제2금융권은 점진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줄이고 크레딧채권 등의 비중을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기는 빠르면 11월 중순 정도로 예상된다. 작년 고금리 수신 경쟁이 10월 중순부터 본격화됐고 따라서 올해 고금리 정기에예금 만기도래도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본격화되는데, 한달여 정도 수신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는 것이 확인되면 자산운용을 정상화해 역마진 구조의 탈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주 크레딧 월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월 30일 미국 국채 발행 계획 및 11월 17일 미국 임시 예산안 만료와 관련한 미 정부 섀다운 여부 등의 불확실성 요소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이벤트가 경과한 이후에는 시장 변동성 진정 기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국의 초과저축 소진,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8%에 육박하는 모기지 금리 등 고금리의 소비 위축 연결 본격화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실물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미국채 장기금리의 하락기조를 완만하긴 해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채에 동조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크레딧의 매수세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2금융권 등의 수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맞물리게 되면 크레딧 수요 회복 본격화 및 강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주요 금융업권별 정기예금 최고 금리

은행			
기관	상품	12개월 이자(%)	출시일
수협은행	헤이(Hey)정기예금	4.15	10.12
우리은행	WON 플러스예금	4.05	10.13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4.05	10.1
케이뱅크	코드 K 정기예금	4	10.16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	4	9.2
저축은행			
기관	상품	12개월 이자(%)	출시일
CK저축은행	정기예금	4.6	10.16
동양저축은행	정기예금	4.6	10.16
머스트삼일저축은행	e-정기예금	4.6	10.13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비대면정기예금	4.6	10.13
청주저축은행	정기예금	4.55	10.17
새마을금고			
기관	상품	12개월 이자(%)	출시일
원광	Block 예금	5.55	10.11
전주송천	MG 더뱅킹정기예금(우대금리미충족시 5.24%)	5.54	10.05
북인천	MG 더뱅킹정기예금(우대금리미충족시 5.2%)	5.5	9.2
동문	MG 더뱅킹정기예금	5.5	9.14
성일	MG 더뱅킹정기예금	5.35	10.16

자료: 마이뱅크, 한국투자증권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